

DAIL COMMUNITY

밥으로 이루는 평화, 밥 피스메이커





다일공동체 30주년, 평화의 열매로

다일공동체 설립 30주년을 맞는 올 해 여름은 평화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한 여름에 남한의 엄마들이 밥을 지어 북한의 병사들을 비무장지대에 초대해서 밥부터 먹자는 밥 피스메이커 운동을 펼친 지 4년이 됩니다.

밥 피스메이커는 밥이 답이요, 밥이 평화이기에 밥부터 나누자는 순수 민간 평화운동입니다. 남북한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정상부터 최전선을 지키는 병사들과 아들을 군대로 보낸 남북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펼쳐가는 평화의 열매가 가득한 여름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후원자님들께서는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휴가를 계획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열매가 가득한 멋진 휴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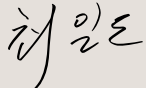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대우기철에 힘없이 녹아버리고 쓰러진 흙집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쓰러져서 뜨거운 햇빛에 몸을 피할 곳이 없기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일비전센터를 하나은행 나눔 재단과 마이다스아이티의 도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고 꽃과 같은 아프리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밥을 나누고, 눈물과 땀을 나누며 비전센터를 건축하는데 여름을 바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평화의 열매가 가득한 탄자니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네팔은 언제나 눈부시게 빛나는 설산으로 유명합니다. 생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손꼽히는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은 지진으로 아직도 고통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에 지진으로 무너진 집과 학교들을 다시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팔다일공동체는 지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보금자리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요람인 다일고아원을 짓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의 중심인 그곳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고아원을 지어줄 네팔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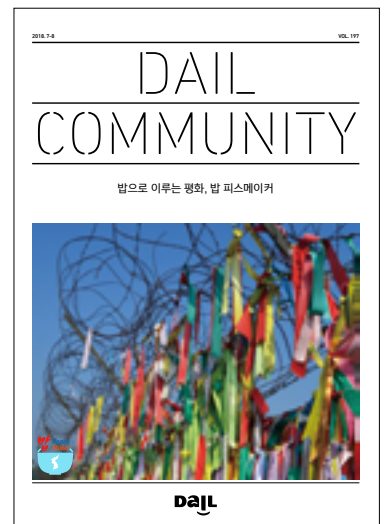
2018년 여름에 모든 후원자님들에게 평화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나눔과 섬김의 시간들을 DMZ나 탄자니아와 네팔에서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힘차게 응원합니다.

작은형제  올림

CONTENTS

Vol. 197

02	30주년 특집 제4회 밥 피스메이커 "밥부터 같이 먹읍시다!"
06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직한 맛, 소중한 나눔
08	Review 밥퍼효도관광 강원도 정선 나들이
10	분원소식
10	중국
12	캄보디아
14	베트남
16	필리핀
18	네팔
20	우간다
22	탄자니아
24	미국
28	밥퍼나눔운동본부
30	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33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36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후원 명단
38	후원 안내
39	후원 신청서
40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cover story

남북한의 경계선 DMZ 비무장지대 철조망에 매달린,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리본들.... 밥으로 평화를 나누자는 밥 피스메이커의 바램도 여기에 있습니다.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다솜, 박찬미, 이순선 디자인·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8년 7월 발행처 | 다일복지재단 주소 | 02558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32 홈페이지 | www.dail.org

“

밥 피스메이커운동은
사회의 빈부격차, 지역분열, 좌우이념, 남북통일의 문제 등
온갖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일에 방향을 제시하고 앞장서며,
교회와 종교 간의 연합을 이루어 넘으로써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가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

제4회, 남북한 화해와 일치를 위한 범국민 평화통일운동 밥 피스메이커

"밥부터 같이 먹읍시다!"



해마다 뜨거운 여름이 찾아오면 6.25 동족의 상잔을 떠올리며 민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게 됩니다. 그러다 뜨거운 여름의 정점 8월 한복판에 이르면 민족의 해방을 떠올리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

부터 울었나보다는 시구처럼 허리가 동강난 분단 조국을 바라 볼 때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해방을 맞아 자유의 노래를 부르고 평화의 춤을 추며 하나로 열싸안았던 때가 다시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② 지난 4월, 11년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

2018년 8월, 밥부터 먹으며 밥으로 평화를 이루자는 밥 피스메이커 행사가 네 번째로 열립니다. 다일공동체 설립자이신 최일도 목사님께서 남한의 엄마들이 만든 밥을 북한의 병사들을 초청해서 밥부터 먹자는 말을 꺼냈을 때는 이게 무슨 돈키호테 같은 이야기냐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독도 새우와 평양냉면이 식탁에 올라와서 남북한 정상들과 장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은 판문점 DMZ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남과 북의 정상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 한 일을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11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오랜 분단과 대결의 세월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자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표명한 것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 지향점과 방법론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체제, 이념의 통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종래에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길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통일입니다. 마음의 통일을 염원한다면 작은 시작을 정치 쇼라고 매도하기보다 화해와 일치의 시작이라고 볼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형제가 굶어 죽어가는 판에 실질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어 살리지 않으면서 “우리 통일하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헛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평화통일의 원리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밥이 답입니다. 한 밥상에 둘러앉아야 됩니다. 밥부터 나눠먹으면 됩니다.

밥 피스메이커운동은 사회의 빈부격차, 지역분열, 좌우이념, 남북통일의 문제 등 온갖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일에 방향을 제시하고 앞장서며, 교회와 종교 간의 연합을



③ 밥 피스메이커 평화운동을 선포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



④ 지난 3회 밥 피스메이커 운동에 참석한 남녀노소의 평화를 위한 외침

이루어 뽀으로써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가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회와 민족을 갈라놓는 일체의 모든 담을 허무는 경험을 나누게 될 것이며, 밥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학적 실재를 통해 치유 화해 일치가 있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한 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밥 피스메이커의 선언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는 정신을 따른 것입니다. 논리와 계산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인도주의적 발상과 문학적 상상력으로, 남과 북의 병사가 철조망을 거두고 한 상에서 밥 먹는 그날까지, 군 최고 통수권자가 판문점에서 밥부터 같이 나누는 그날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무너진 곳, 갈등하는 곳마다 밥의 노래를 부르며 밥과 기도로 하나 되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밥이 답입니다. 나눔과 섬김만이 화해와 일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밥상 앞에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판문점에서의 밥상 나눔이 남과 북을 갈라놓은 휴전선 곳곳에서 이뤄지는 꿈을 꿉니다. 서해바다에서 동쪽 비무장지대 철책 선까지 우리 어머님들이 행주치마 입고 밥상 들고 애들아! 밥부터 같이 나누자!!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운동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화해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통일의 바닥운동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으로 평화를 열어가기 위해서 밥부터 먹자는 제4회 밥 피스메이커 운동은 8월 8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함께 서로 존중하며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염원하며 함께 밥을 먹으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8월 8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모이기 위해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밥부터 먹고, 밥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마음모아 기도합시다.

제 4회 밥 피스메이커 개최

일시	2018년 8월 8일 (수) 오전 11시
장소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밥 피스메이커 신청문의

☎ 02-2214-0365, 010-4438-0326

담당자 밥퍼나눔운동본부 이정훈 주임
참가 문의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전화로 예약가능합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❶ 다일공동체의 남북한 평화운동 밥 피스메이커 행사에 제공된 한촌 설령탕

어버이날 기념 한촌설령탕의 특별한 나눔 정직한 맛, 소중한 나눔

귀사이신 한촌 설령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SINCE 1982,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2대째 계승, 젊은 열정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한촌설령탕'

대표적인 슬로푸드인 설령탕과 김치, 그 안에는 오랜 전통과 문화가 울음이 배어 있습니다. 슬로푸드 고유의 맛과 정신을 유지하면서 조리방식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이연에프엔씨는 정직한 육수, 맛있는 설령탕이란 슬로건 아래 '설령탕'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의 꿈을 이루고 있는 열정적이며 젊은 기업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밥집 프랜차이즈'를 전국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도록 회사 내 모든 임,직원들은 노력하고 있으며, 한촌을 찾아 주시는 고객분들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어버이날 밥퍼나눔운동본부를 통해서 독거노인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0여년 전, 부모님이 밤새워 끓여내 따뜻한 설령탕 한 그릇에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까까머리 중학생이던 밥집 소년은 손님들의 행복한 웃음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꿈 하나를 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행복을 가득 담아 주는 정다운 '밥집 주인'이 되고 싶다고.

밥집 주인을 꿈꾸던 감미옥의 소년은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자 1998년, 역삼 직영점을 열면서 밥집 소년의 어릴 때부터 간직했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전통의 맛을 새롭게 구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당일을 마치고 나면 대학원으로 달려가 밤늦게까지 경영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30여년전, 밥집 주인을 꿈꾸던 감미옥의 그 소년은 이제 더 큰 꿈을 꾸니다. '설령탕' 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 진정한 의미의 '밥집 프랜차이즈'를 개발해 행복을 나누는 최고의 밥집을 만들겠다는 꿈. 그 꿈을 위한 밥집주인으로써의 밥 나눔은 꿈의 일부이기에 지금도 늘 한결같은 맘으로 나눔을 실천합니다.

한촌설령탕만의 기업 문화 또는 나눔에 대한 원칙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업미션: 고객에게 행복한 건강을 실현하는 외식전문기업.

맛있고 건강한 행복을 가득 담아주는 정다운 '밥집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매장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곳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대접하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도 나눔과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밥퍼나눔운동본부 포함)

2012년~2018년: 어린이재단과 백혈병소아암협회와 협약 가맹점과 함께 사랑의 모금함 기부 진행, 2014년~2018년: 밥퍼운동본부 설령탕 지원, 2015년: 충북 음성 대한노인회 삼계탕 식사 지원, 2015년 한사랑마을 삼계탕 식사 지원, 2018년: 성내 종합사회복지관 가정의달 행사 지원 등의 실천을 통해 나누며 살아가는 한촌설령탕이 되고자 합니다.

올해 70호점 돌파 및 7년 연속 100대 프랜차이즈로 선정되는 영광이 있었는데요, 한촌설령탕만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한촌설령탕은 1982년에 개점한 감미옥이 전신으로 무려 30년 이상을 지켜온 한결 같은 맛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2012년 가맹사업을 시작으로 6년여 만에 70개의 매장을 보유한 한촌설령탕은 타 외식 브랜드와 달리 가맹사업의 속도보다 내실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속도는 느리더라도 매장 매출만큼은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촌설령탕은 느리게 가되 제대로 가자는 본사와 가맹점의 공통된 철학을 바탕으로도 차근차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과 매장을 운영하며 국내 대표 설령탕 브랜드로 자리를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100년 프랜차이즈 기업을 위한 경쟁력으로 갖추어 가맹사업은 신중하게, 기존 점주들은 확실한 수익을 통한 만족을, 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있는 다일복지재단과 밥퍼나눔운동본부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끼 식사를 대접함으로 정을 나누고 그 정을 더 큰 정으로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늘 지금처럼 오래도록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답변자: 한촌설령탕 김경민 팀장



② 어버이날 밥퍼나눔운동본부 밥상공동체 가족들께 나누어진 한촌 설령탕 선물세트



① 밥퍼의 밥상공동체 가족들과 함께한 행복했던 정선 여행

밤퍼호도관광 강원도 정선 나들이

2018년 5월 2일 오병이어의 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밥퍼 어른 60여명과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이른 아침 밥퍼에 모여 출발준비를 했을때만해도 비가 그칠 생각이 없어보였지만 다행히도 정선에 도착하니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밥퍼를 출발하여 정선으로 가는 버스안, 미리 준비한 간식을 나눠드리고 당일 여행코스를 간단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청량리에서 정선까지 짧지않은 거리임에도 어른 한분도 주무시지않고 옆자리 어른과 대화하시며 즐겁게 출발하였습니다.

정선에 11시 정도에 도착하여 정선의 대표음식인 곤드레밥 정식을 먹었습니다. 어른들 입맛에 맞으셨는지 많은 분들이 밥 두공기 이상 드셨습니다. 조금은 이른 점심시간일 수 있지만 저희 밥퍼에서는 11시부터 배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식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여행 당일 정선 장날이었습니다. 12시 30분에 정선아리랑시장에 도착하여 조별로 어른 5명, 직

원1명으로 나누었고 소액의 돈도 지급하여 구경하시면서 심심하지 않게 준비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이 사람이 많아 혹시 어른들이 길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각 조별로 서로 챙겨주고 한마음으로 임해주어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장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선 장 구경을 마치고 단종임금의 묘소가 있는 영월 장릉에 방문하였습니다. 해설사를 통하여 단종에 관한 역사를 알 수 있었고, 장릉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청량리로 돌아오는 길 원주 황둔찐빵 마을에 들러 어른들께 찐빵을 선물로 드리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각자 댁으로 돌아가시는 어른분들께서 즐거웠다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평소 청량리나 거주 지역외로 여행하시기 어려운 형편의 밥상공동체 가족들께 큰 선물을 해주신 후원 기업 여러분들과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② 여행이 끝나고 한동안 계속 좋은 여행이었다고 웃으며 인사해주심 ③ 찐빵 너무 맛있었다고 말씀해주심

④ 오랫동안 여행의 기쁨을 나누시는 어르신들 ⑤ 행복했던 밥상공동체 가족들의 정선 효도 관광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① 7살 이판(남, 파란옷)-두만강에서 ② 열여섯 살이 되던 해의 이판

독립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요이판

7살에 다일어린이집 가족이 되어 현재는 아동 복리원의 큰형인 이판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복리원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독립을 준비하며 이판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유학을 위해서는 먼저 한국대학들이 요구하는 한

국어 능력고사에서 일정기준을 넘어야하기에 시험을 쳤습니다. 이판은 한족이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조선족 학교를 다녀 한국어 읽기 쓰기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막상 시험을 본다니 긴장이 되어 공부도 하고 시험시간을 그대로 맞춰 모의고사도 보며 준비를 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판에게 알맞은 일정들과 학교, 대학진학을 위한 후원자 분들 만나 순조롭게 한국유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다일 애심회에 주신 새 생명

중다일 애심회를 이끌고 있는 예화+원철부부에게 둘째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심에 그저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국의 최일도 이사장님께서도 축하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중국 각지의 중다일 가족들이 실시간으로 둘째의 탄생을 공유하며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비록 핏줄을 나눈 가족은 여러 아픔들로 인해 지금 옆에 없지만 이제는 거기에 머물며 타타하지 않고 감사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삶을 함께 나누는 중다일 가족들이 있기에 더욱 풍성합니다. 늘 중다일 애심회를 이끌며 대소사를 챙기고 큰일을

척척 맡아서 하는 예화+원철 부부와 두 아들을 통해 보여주실 앞으로의 시간들을 소망가운데 지켜보는 축복을 중다일 가족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③ 림예화+리원철 부부의 둘째 아들



④ 오랫동안 모인 졸업생들

중다일 방문 리일+홍광부부

캄보디아에서 휴가를 맞아 리일+조홍광 부부가 방문했습니다. 1년만의 방문으로 중다일 가족들, 동생들도 만나고 외지에서 늘 그리웠던 고향음식 양꼬치와 연변냉면도 먹었습니다^^ 늘 밝은 에너지로, 아름다운 삶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리일+ 조홍광 부부의 이야기들과 발걸음에 중다일 가족들도 더욱 힘이 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중다일은 현지 사정상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 여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더 높이 뛰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시간 함께 해주시며

기다려주시고 중다일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큰 힘이됩니다. 함께 계속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캄보디아 CAMBODIA

고세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펜 지부장



① 프놈펜다일공동체를 찾아주신 신한은행 임직원 봉사단

뜨겁게 더운 열기로 가득한 캄보디아, 그중에서도 가장 더운 달인 4, 5월이면 프놈펜 지부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반가운 봉사팀이 있습니다. 바로 신한은행 캄보디아 봉사팀 인데요. 매년 전 직원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봉사에 참여하십니다.

올해도 백 여명이 넘는 전 직원이 아침 일찍부터 봉사에 참여해 아이들의 머리도 감기고, 밥과 빵을 만들어 나누고 학용품도 나눠주셨습니다. 캄보디아인 직원 분들과 한국인 임직원 분들이 모여 다함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는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줍니다. 설거지까지 뽀뽀 깨끗이 끝마칠 때 까지 봉사를 하고 돌아갈 때도 미소로 인사하는 신한은행 캄보디아 봉사팀을 보면 역시 대한민국 대표 은행이라는 찬사가 나옵니다.

신한은행 캄보디아에서는 봉사만이 아니라 후원으로도 프놈펜 지부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오랜 기간 사용하여 허름한 식당 지붕과 비가 오면 상습 침수되는 식당 바닥, 오래 사용하여 낡은 식당 테이블을 새로 수리하여 주시고 전등과 선풍기까지 설치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세찬 비바람에도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올해도 저희에게 꼭 필요한 쌀, 식용유, 밀가루, 선풍기, 냉장고 등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5000불 가량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매년 후원 요청드릴 때 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요청 드리는데 요청 드릴 때마다 흔쾌히 요청을 들어주시고 내년에도 걱정 마시라는 법인장님의 말씀에 따뜻

한 온정을 느낍니다.

물품지원식을 마치고 잠시 티타임을 가지며 신한은행 캄보디아 전 지점에 모금함 설치를 요청 드렸는데 이 또한 허락해주셔서 모금함도 각 지점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후원해 주시고 찾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작은 정성인 빵을 구워 선물로 드렸더니 진심으로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임직원분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원받은 물품 중 식용유와 쌀을 어려운 가정들에게 나눠주는데 모두 손을 들어 엄지를 치켜 올리며 동네 주민들이 토니끼어 신한 엿째!(신한은행 최고야!)를 외칩니다. 기업 활동은 물론이고 이웃을 돌아보는 신한은행께 감사드리며 함께 외칩니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신한은행 캄보디아가 최고야!!"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12-808-86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① 5회 ARDITO 단체사진

'ARDITO' 자선음악회

금년으로 제 5회째를 맞이하는 ARDITO 자선음악회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된 악단입니다.

연령도 다르고, 학교도 제 각각인 단원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기 위해 수개월 동안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악보와 동선을 외우는 등 참으로 많은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단원들이 제 모양을 갖추어 갈수 있도록 악단을 총괄하시는 안혜선 단장님과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셨던 학부모님들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음악회였습니다.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며 연습했을 아이들의 모습과 이들을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을 안혜선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니 어떤 음악회보다도 값지게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연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다양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 멋지고 안정된 선율로 음악회를 개최해 주시으로써 바쁜 일상 속에서 음악과 함께하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음악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베트남 다일공동체의 밥퍼사업에 후원해 주시으로써 주변의 소외된 분들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

련해주신 'ARDITO' 단장님과 단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ARDITO'자선음악회에 참여한 단원들을 격려해 주시고자 한결음에 달려와 주신 임재훈 총영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RDITO'단원들이 악기의 선율로 사랑을 표현해 주었다면 밥퍼는 맛있는 밥을 정성을 가득하게 담아 대접해 드림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을 통해 이웃을 돌아보는 ARDITO 안혜선 단장님과 단원들이 있는 곳에는 늘 행복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베트남 다일공동체 +84-90-382-0918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② 5회 ARDITO 연주 ③ 왼쪽부터 아르디토 안혜선 단장님, 임재훈 총영사님, 베트남다일공동체 이애리 원장



필리핀 PHILIPPINES

이명현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살라맛 뽀 예수스 (감사합니다. 예수님) ~~"

"살라맛 뽀 스폰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

필리핀 다일공동체 사명실현지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인사 올립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전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중에 평화통일의 꿈을 꾸고, 이 곳 필리핀에서는 바랑가이 캡틴 선거의 열풍이 뜨겁게 휘몰아치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 처절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준다면 참말로 좋겠습니다.

까만씨에서도 드디어

일대일 결연후원 아동들에게 후원품 나눔을 시작하였습니다. 필리핀에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건만 가난한 이들은 거의 방임 상태입니다. 정부도 성당들도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후원천사님들이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일대일 아동결연 후원이 이루어졌고,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이들에게 큰 위로의 선물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후원품으로 무엇을 전달할까 이리저리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박하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서도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밥'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학교도 가고, 먹어야 건강하

게 커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쌀을 선물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쌀 한 자루씩 받아들고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엄마 아빠들도 너무 너무 고마워하며 좋아하는 것을 보니 어찌나 제 마음이 짠하면서도 기쁘던지 후원천사님들을 대신하여 제가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다른 한 켠에서는, 결연후원은 맺어졌지만 아직 후원금이 입금되지 못 해 후원품을 받지 못 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결연후원 신청을 위해 상담은 했지만 아직 후원자를 찾지 못 해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켠에서는 다른 자녀에게도 어서 어서 결연후원이 맺어져서 마음 편히 학교에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학교가 개학을 하여 신학년이 시작되므로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 광고를 듣고 지난 번에 대형 화재로 온 마을이 전소되었던 파라다이스 마을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였습니다.

또 아직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어서 어서 후원천사님들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 참말로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혹 필리핀 빈민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보글보글 동하시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아~!!!



① 윤춘오 장로님과 김상영 권사님의 가족들과 함께



② 여름성경학교 졸업장을 받아두고 찰칵!

까만시의 여름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한 달 동안 하였습니다. 무슨 여름성경학교를 한 달씩이나 하느냐구요? 진짜냐구요? 네, 필리핀 다일공동체 까만시 센터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빈민촌 중에서도 바다 위에 떠있는 수상촌이다 보니 아이들은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놀 곳도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종달 새처럼 찬양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읽고 쓰고 암송하며, 아침마다 우리 센터에서 갓 구워낸 바삭바삭 맛있는 빵도 먹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교회들은 무지 무지 부러우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마치는 날에는 졸업식까지 하였습니다. 필리핀스럽게 졸업식은 사뭇 성대(^^)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최대한 꽃단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부모님들도 참석하여 축하해주었으며, 저는 원장으로서 한명 한명 호명하여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하면서 축하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졸업식 2부 순서에는 아이들이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자축 공연이 있었습니다. 찬양과 워십댄스는 기본이거니와 드라마와 발레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재능들이 있었던 말이야?"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잘 해주지 못 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잘 해줘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후원천사

윤춘오 장로님과 김상영 권사님, 그리고 두 분의 외아들 윤한글 님을 소개합니다. 여기 필리핀까지 날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빵과 간식을 공급해주시고, 일대일 아동결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센터 주방의 열악한 시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방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후원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다일공동체를 꾸준히 후원하시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협력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큰 힘과 위로를 주신 아름다운 후원천사 윤춘오 장로님 가족께 감사드립니다.

[후원 및 봉사 문의]

이명현 원장: (+63) 916-517-5892 / emhok@dail.org

필리핀다일공동체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29

예금주: (사) 데일리다일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16-517-5892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네팔 NEPAL

부번 팀시나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결연아동 물품지원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나라 네팔에서 인사드립니다. 쉼이 머시~ ① 네팔의 새해(한국의 4월)를 맞아 결연아동들에게 신학기 학용품과 입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손 가득 들려진 학기동안 쓸 과목별 공책과 연필 등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 입학금 때문에 걱정하던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많은 후원자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도로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어린이예배

② 매주 토요일에 드려지는 예배에 이번 주는 우리 모두의 탄성으로 센터가 찢렁 찢렁 울렸습니다. 매 주일 여자아이들만의 고유 영역이었던 춤 찬양에 남자아이들이 댄서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위십이 보는 우리들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아이들의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이 예배입니다.



호프스쿨, 유치원 졸업식과 입학

③ 호프스쿨 16명이 정규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일 년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곧 이어 호프스쿨에 새로운 아이들이 입학 하였습니다. 적응기간을 거치며 1년 동안 배우고 익혀 정규학교로 편입을 하게 될 꿈을 갖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직은 알파벳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지만 하나씩 익혀가며 얻을 기쁨에 지켜보는 선생님들은 설립니다.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페이스페인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표정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네팔다일공동체를 찾아주신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④ 카타르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시는 김상준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네팔을 체험하며 밥퍼 봉사로 마무리 하시고 사역지로 돌아가셨습니다. 더 머물며 아이들과 함께 계시고 싶다는 사모님의 바람이 카타르에도 굶주리고 소외 된 아이들을 향한 나눔으로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기도했습니다.

⑤ 부산영락교회에서 현지 어린이들과 30여명이 찾아와 밥퍼 봉사를 하였고 하루 배식비를 후원해주셨습니다. 해마다 찾아와 주시는 사랑에 우리 모든 아이들과 스텝들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배웅하는 동안에 그분들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떠나신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신두팔촉 꿈퍼 고아원

⑥ 신두팔촉에 지어지고 있는 꿈퍼 고아원이 이제 2층 슬라브를 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큰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든든히 세워가느라 다소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앞으로 지내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는 엔지니어 대표분과 인부 아저씨들이 참 고맙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현재 후원을 약속하셨던 후원자님의 사정으로 공사비 부족의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찌할수 없었기에 저희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후원자님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아원 건축에 동참하는 후원천사가 되어주세요!

밥퍼의 새로운 부지를 위해

⑦ 지금 있는 밥퍼 센터는 도시화에 밀려 반쪽이 길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카트만두 시내가 놀랍게 발전되어가는 사이에 밥퍼에 오는 가난한 아이들의 집이 헐려나가고 하룻밤 사이 가난으로 텐트촌에 모여사는 이들의 집인 텐트가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즐겁게 뛰어 놀던 공터에는 땅을 돋우기 위해 실려 온 갖가지 건축 폐기물 돌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하여 밥퍼를 할 수 있기를 먼저 바라고 소원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오면 새로운 부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이어나갈 네팔다일공동체 밥퍼를 위해 큰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간다 UGANDA

변창재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Sickle Cell 소녀들 병원 진료

지난 달 소개해 드렸던 유전질환인 'Sickle Cell'을 앓고 있는 캐서린과 아이린을 데리고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Sickle Cell' 아동을 진료하는 병원이 밥퍼센터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이미 그 병원에 등록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달 가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어려운 형편으로 몇 달 만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린은 지방에서 2014년도에 마지막 진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 육안으로 보아도 눈이 노랗고 팔, 다리가 너무 얇아 곧 부러질 것 같은 아이린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현재 헤모글로빈 수치와 말라리아 감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말라리아는 걸리지 않았지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수치의 절반인 6~7이 나와서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4년 동안이나 진료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아이린은 더 많은 약을 처방 받음은 물론이요, 간과 신장의 기능과 뼈의 이상유무 추가 검사가 필요해 캄팔라 시내 병원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간과 신장의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고 뼈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틀에 걸쳐 모든 추가 검사를 마치고 나서야 의사 진찰을 통해 아이린은 수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순서대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을 보며 초라한 옷차림의 이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 같아 병원측에 유감을 표명했고 사과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들의 돌봄이 없고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캐서린과 아이린. 아동결연을 통해 다시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부디 몸과 마음이 잘 회복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ur Children, Our Hope!



① Kisubi 병원 중 아동병동 전경



② 키고 초등학교 여학생들

대안생리대 (Reusable Sanitary Pads)

아프리카에서 학교 출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집과 학교와의 거리, 부모님이 시키는 집안 일과 농사일, 가정 경제형편, 건강 문제 등. 여기에 성장기의 여자 아이들은 한가지가 더 추가 됩니다. 바로 menstruation(월경) 입니다.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이고, 천 조각을 주로 사용하는데 위생상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 주기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와 성교육을 얼마나 선생님으로부터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월경이 시작되어 학교에 왔다가도 다시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아들의 결석과 조퇴가 빈번해지고 학업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키티고 초등학교, 키고 초등학교의 여자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후원자 한 분께서 세탁이 가능한 대안생리대 200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간다 여성들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 한 곳에서 교육 자료와 함께 대안생리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올바른 생리대 사용법과 생리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한 후에 생리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여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더욱 기뻐하셨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나

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양질의 대안생리대를 사용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귀한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대1 아동결연 문의]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조예슬 주임

미주다일공동체: +1-770-813-0899 김고운 원장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우간다 다일공동체

+256-771-072-382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소피아 가정에 새집이 생겼어요!

작년에 호프클래스 4기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소피아는 요즘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엄마와 오빠 세 명, 남동생과 함께 사는 소피아에게 얼마 전 예쁜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이제 육남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피아가 더 기쁜 것은 다 쓰러져가던 옛 흙집이 튼튼한 벽돌집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도 부엌이 달린 방과 화장실이 생긴 것입니다.

작년에 소개했던 소피아 가정의 눈물 어린 사연을 읽고 한국의 후원천사 한 분은 이 흙집의 땅 구입액을 후원해주셨고, 다일공동체 홍보대사 윤석화님은 이 흙집을 허물고 튼튼한 벽돌집을 지으라고 건축비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숫장사를 하던 소피아 엄마의 병세가 심해져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내가 죽어도 우리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제발 이 흙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시던 소피아 엄마와 오남

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흙집이 더 크고 넓고 튼튼한 벽돌집으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는 두 후원천사님의 도움으로 작년에 흙집을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 3월 대우기가 시작되기 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난 5월초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새집에 들어가는 것을 하늘이 축복이라도 하듯 소피아의 막내 여동생이 새집과 함께 생겼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소피아 엄마의 출산을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산모와 아기는 건강이 괜찮은 편입니다.

새집에 입주하며 "이제 육남매가 되었는데 제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이제는 걱정이 안돼요!"라며 활짝 웃는 소피아 엄마의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두 분 후원천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썬데 싸냐!



① 소피아네 새집 공사



② 무료급식 빵퍼를 통해 빵을 나눠받은 아이들

탄자니아 100불의 기적에 동참해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약800명의 쿤두치 채석장 마을 아동들이 밥퍼센터를 찾습니다. 한 주는 밥퍼(쌀밥, 감자스튜, 콩스튜), 한 주는 빵퍼(빵, 주스)를 진행합니다. 갓난아이들도 1인분을 나눠주니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은 동생들을 안거나 업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한 명은 등에 업고 한 명은 손을 잡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퍼때는 아동들 3분의 1은 빈그릇이나 봉투를 가지고 와서 밥을 싸가지고 갑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과 나눠먹기 위해서 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평상시 형편상 쌀밥을 잘 먹지 못하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1인분에 해당하는 밥을 가족들을 위해 싸가지고 가는 아동들을 볼 때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마음이 많이 찡합니다. 우리 아동들에게 맛있는 밥을 배불리 더 먹이고 싶습니다. 지금 보다 조금이라도 더 밥의 양을 늘리고 싶습니다. 100불의 기적입니다. 100불이면 아동 200명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100불이면 200가정의 가족들이 따뜻한 밥을 조금씩

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100불의 기적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백불의 기적 후원]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58

예금주: (사)데일리다일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629-426-641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 (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 (국제사업실)



미국 AMERICA

김고운 미주 다일공동체 원장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① 다일영성수련에 참석중인 참가자들

할렐루야!

5월의 아름다운 계절, 북가주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도시 몬트레이에서 미주18기 아름다운 세상 찾기가 5월 20일에서 24일까지 그 어느 때 보다도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이번 아름다운 세상 찾기에는 모두 31명의 벗님들이 각각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찾아 오셨고 다일 영성수련회를 통하여 그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 하나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 일체 은혜 감사 뿐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멀리 한국에서 7명의 벗님들이 찾아 오셨고, 미국 내 헌츠빌, 시카고, 아틀란타등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도 찾아 오신 벗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다일 영성수련회를 통해 모두가 하나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체험하며 깨닫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몬트레이 영락교회의 장소 사용을 허락해 주신 조강운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영락교회의 많은 성도 분들의 헌신적인 배려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다일영성수련회를 위하여 헌신된 마음으로 봉사해 주신 주방장 윤수현(짱아)

님을 비롯한 김애경, 윤수영, 설나현 님, 여행도우미로 한국에서 까지 찾아와 주신 김상준 목사님, 황혜정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고비 고비마다 어려운 상황들을 잘 넘기며 은혜롭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번 수련회가 열린 기간이 몬트레이 영락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 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몬트레이 영락교회와 미주다일 영성수련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문의

02-2212-8004

후원관련

연결음 후 1번(후원관리실)

내용관련

연결음 후 6번(국제사업실)



② 강의중인 최일도 목사 ③ 미국과 한국에서 영성수련을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일공동체 단식기도수련 안내

목안리 다일공동체 '다일 평화의 마을(다평마)'에서는 2018년 2월부터
단식기도수련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생활단식과 함께 몸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전인치유적인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영과 육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을 정중히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목안리 다일공동체로 오십시오! 기독교 전통적인 기도수련과 함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드리며 동시에 깊은 영적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단식기도수련은 매주 개최됩니다.

주요 강사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최일도 목사
다일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연수 대표
설곡산 다일공동체 원장	김지훈 목사
목안리 다일공동체 원장	김혜경 목사

문의

031 584 7478(목안리 다일 평화의마을)
010 8948 8271(목안리 다일공동체 김혜경 원장)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목안로 902번길 17-3
(다일 평화의마을)

다일DTS훈련생을 모집 공고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영성생활, 예배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 일하며 기도하는 공동생활,
나누며 섬기는 봉사생활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다일의 정신과 영성으로 세워질 예수그리스도의 군사를 찾습니다.

1년 과정을 모두 수료한 분들 중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다일공동체의
해외사역지로(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우간다) 파송되어 선교사로도 헌신할 기회도 있습니다.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다양한 영성수련과 함께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와
다일천사병원에서의 노동기도, 목안리 DTS훈련원에서의 예배의 삶을 통해 훈련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 지원의사를 전달하여 주시면 소정의 지원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자격

19세 이상 ~ 55세 미만

문의

031 584 7478(다일DTS훈련원)
010 8948 8271(다일DTS훈련원 원장 김혜경)

다일DTS훈련원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목안로 902번길 17-3
(다일 평화의마을)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

다일DTS훈련원 원장

김혜경 목사





대한민국 KOREA

조경래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분부장

"선배들의 나눔이 밥퍼 봉사의 열매로" -사동초등학교 4학년 담쟁이반의 첫 자원봉사이야기-



❶ 뿌듯한 마음으로 식판을 나르고 있는 어린이 봉사자

했다. 껌재를 부르며 4월 초 밥퍼에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보여 줄 봉사과정을 담은 사진을 찍고 어떻게 준비할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우리 반 아이들이 한 사람의 자원봉사자로서 밥퍼 봉사에 임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자원봉사》를 함께 읽으며 봉사활동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봉사활동 할 때의 마음가짐을 다져나갔다. 어린이 도서 《나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중에서 최일도 목사님의 '밥 굶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밥 퍼 드리러 가자! 밥 퍼 드리러 가자!"를 외치며 밥퍼 봉사의지를 다졌다. NGO가 하는 일, 다일공동체의 사명, 실천, 현장이야기, 역사를 함께 공부하며 밥퍼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식사하러 오시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밥퍼나눔장터'를 열어 자선들이 가져온 물건을 판 수익금 93,700원을 보냈다.

드디어 밥퍼가는 날! 어른 봉사자들이 몇 명 안되어 조바심이 났지만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서투르지만 마늘까기, 배추 씻기, 청포묵 썰어 무치기, 배식, 식판 나르기, 설거지, 식당과 주방 청소까지 아이들은 실재없이 움직이며 각자의 몫을 해냈다. 힘들어서 순간 11살짜리 아이의 모습이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힘들음 내면의 기쁨으로 이겨내

"결심했어!" 작년 크리스마스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단체로 봉사하러 온 학생들을 보며 우리 반 아이들을 꼭 데려오겠다고 마음먹었다. 4년 전 밥퍼와 첫 인연을 맺었을 때부터 조심스럽게 키워왔던 꿈이었다. 예전에 아이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여러 기관을 알아봤지만 가족 단위가 아닌 초등학교 단체를 선뜻 받아주는 곳을 찾기 힘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봉사경험도 없고 우르르 몰려와 잠깐 왔다가는 아이들이 반갑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3월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 밥퍼 봉사이야기를 슬쩍 꺼냈더니 '봉사'를 한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좋아했다. 아이들 반응에 힘입어 민폐가 되지 않을까 망설이던 마음을 다독이며 용기를 내 밥퍼에 봉사활동을 문의했더니 초등학생도 가능하다고



❷ 씩씩한 걸음으로 밥퍼에 들어선 아이들



③ 처음해보는 배식에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들 ④ 힘든 설거지중에도 웃음 짓는 어린이 봉사자들 ⑤ 따뜻한 마음으로 담아낼 음식 앞에서

는 아이들이 고마웠다. 아이들이 예쁘다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어른신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차근 차근 할 일을 설명해 주신 밥퍼 주방장님과 봉사자분들, 나눔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밥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4학년 담쟁이들과 밥퍼와의 인연은 2015년부터 이어져왔다. 아이들은 기억도 못하고 있었지만 2015년 5학년 선배들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필리핀 밥퍼에 비타민 보내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후원금을 보냈었다. 선배들의 나눔이 후배들에게로 이어져 2016년 필리핀 밥퍼, 2017년 필리핀 까만 씨 마을 후원과 올해 밥퍼 봉사까지 이어졌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전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는 것을 깨달은 4학년 담쟁이들. 주변에 선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선한 열매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사동초등학교 교사 최원일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대한민국 KOREA

임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① 다일문화대학 6회 김연수 시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일문화대학 개최

다일문화대학의 시작은 2017년 7월 5일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있었던 협치형 프로그램 발표를 통해 첫 발걸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일문화대학으로 채택이 되어 시민참여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4월 3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일문화대학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2013년에 밥파나눔운동본부에서 클레몬트코스라는 노숙인과 독거노인분들께 인문학 강의를 통한 프로그램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현재의 다일 가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나누고 배울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연령, 나이, 직책 필요 없이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매주 행운권 행사 및 팬사인회 그리고 다양한 간식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가수, 탤런트, 시인,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들이 직접 방문하시어 강의를 해주십니다.

다일문화대학의 개최 목적을 들으신 최고의 강사님들께서 많은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솔선수범하여 강의를 꼭 하시고 싶다고 일정표를 조정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4월 3일 최일도 학장님의 오리엔테이션과 '아름다운 세상만들기'라는 주제의 강의로 다일문화대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에는 정호승 시인, 윤은기 회장, 홍순관 가수, 김연수 시인, 김경호 교수, 조용

근 회장, 이강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들이 수강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매번 강의를 마무리 하였고, 사인회까지 열어 다일문화대학 수강생분들의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다일공동체에서는 삼십년전부터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 분들께 하루에 한 끼 진지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일공동체는 지역의 이웃들과 사회의 소외계층 노인분들께 육체적 양식 그 이상의 욕구와 삶의 질을 높여 드리기 위해 시작된 다일문화대학을 통해 영적, 정신적 양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께서도 인문학과 문화 활동 등을 통해 배움을 즐기고 또한 삶에 활력과 용기를 심어 줄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불꽃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지역주민들의 지식과 의식들이 높아져야 지역이 발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땅에 작은 변화가 큰 불처럼 번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안내



다일작은천국

02-2213-8004



② 다일문화대학 1회 최일도 학장 ③ 다일문화대학 3회 윤은기 회장 ④ 다일문화대학 4회 홍순관 가수

다일공동체 SNS 친구가 되어주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SNS 검색창에
'다일공동체'를 검색해보세요!



좋아요



댓글



친구추가

클릭클릭!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다일공동체의 국·내외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다일공동체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소식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에서도 만나요!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밥퍼나눔운동본부



봉은초등학교

봉은초등학교에서 학생 30여명과 학부모님들이 밥퍼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 날 봉은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각자 저금통에 모아온 66만원을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해 주었습니다. 또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사리같은 손으로 부지런히 카네이션도 만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마냥 놀고싶은 토요일이었을텐데 싫은 기색 하나없이 열심히 카네이션을 만들 어준 봉은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카네이션을 받은 어르신들도 기뻐하셨습니다. 봉은초등학교 학생들 모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응원합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 밥퍼에 봉사를 왔습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는 작년 거리성탄예배 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봉사를 했습니다. 이 날 학생들은 어르신들 식사하시기 전 기타까지 준비해와서 노래와 춤으로 분위기를 밝게 해주었고 어르신 한분 한분 안마 해드리며 즐겁게 봉사해주었습니다. 항상 밥퍼와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며 봉사해주는 정신여자고등학교 학생들! 앞으로도 밥퍼와 함께 따뜻한 나눔과 섬김 부탁드립니다!



뷰티플마인드

뷰티플마인드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전 세계의 소외된 이웃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문화외교 자선단체입니다. 밥퍼의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고 이번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밥퍼와 뷰티플마인드 로고가 새겨진 보틀(물통)을 준비 해주셨습니다! 밥퍼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마시는데 대부분 일회용 컵을 사용하여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뷰티플마인드에서 예쁜 물통을 선물하여 주셔서 어르신들이 더욱 깨끗하고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을 함께 해 주신 뷰티플마인드가 최고야!

우간다



영국에서 오신 자원봉사자

홍성필 님+김한나 님 부부께서 영국에서 잠시 우간다를 방문 중에 귀한 땀방울을 흘리며 밥퍼 자원봉사로 섬겨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웃음과 함께 밥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프리카와 우간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공감되었습니다. 귀한 부부를 인도해 주신 김은석+최문정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설명: 좌측부터 권용배 국방무관님, 김은석 선교사님, 최문정 선교사님, 김한나 선생님, 이현신 부원장, 홍성필 선생님)

베트남



이랜드 노동조합

매년 어김없이 밥퍼를 방문해 주시고, 맛있는 밥과 쌀을 나눔해 주시는 이랜드 노동조합 조합원 분들이 올해에도 밥퍼를 찾아주셨습니다.

날마다 뵙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한국에서 오시는 만큼 일년에 한번씩 뵈니 반가운 마음이 배가 됩니다. 오실 때마다 두손가득 넘치도록 가득한 선물을 준비해주시는 이랜드 노동조합 조합원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K+S ORCHESTRA

텀 방학을 맞이하여 K+S ORCHESTRA 학생들이 밥퍼를 찾았습니다. 매년 오실 때마다 풍성하게 준비해주시는 쌀과 맛있는 밥이 받는 분들의 얼굴과 마음을 환하게 해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모습이 참으로 귀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K+S ORCHESTRA 학생들의 나눔과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좋은 영향력으로 번지기를 희망하며, 학생들의 멋진 앞날을 응원합니다.!!

작은천국



연세대학교 학생자원봉사자들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다일작은천국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멀리 원주 캠퍼스에서 청량리까지 봉사하러 오느라 힘들었을텐데 힘든 내색 없이 생글 생글 웃는 얼굴로 봉사를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3명의 친한 친구들이 함께 와주었습니다. 오자마자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 혈압을 재었는데, 각 방을 돌아다니며 혈압을 재는 모습이 간호사 같았습니다. 점심 배식도 어르신들께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요즘에 드문 마음이 건강한 친구들 이란 걸 알았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시간을 내어 다일작은천국에 봉사한다고 약속했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때 만나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락고등학교 자원봉사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락고등학교 1, 2학년의 뜻있는 학생들이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왔습니다. 영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의의 사회 건설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봉사적 인물을 배양하고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고 책임감과 협동심이 강한 애국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이번에 온 영락고등학교 학생들은 1,2학년 영재반으로 구성된 모범생들이었습니다. 역시나 봉사를 할 때에도 공부할 때처럼 열심히 청소와 프로그램 봉사에 참여해주었습니다. 봉사시간이 너무 짧았으며 좀 더하고 가고 싶다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 다음번에도 또 봉사를 올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다음번 봉사 올 때 다시 만나요.



헤브론스타 자원봉사팀

오랜만에 기업에서 다일작은천국에 봉사를 오셨습니다. 헤브론스타는 세계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간의 상호 연결을 도와주는 경영전략 컨설팅 회사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봉사를 와서 나른함을 뒤로 하고 어르신 산책, 목욕 등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시간 동안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게 후원금도 성의라고 말씀하시며 들고 오셨답니다. 평상시에 일하시는 것도 힘드실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봉사를 해주셔서 소식지를 통해 너무나도 감사하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본원)



데오스학교 착한여행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밥퍼! 새로운 밥퍼건물 건축 ODA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오스학교에서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밥퍼활동과 더불어 아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풍선,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놀이봉사를 준비하여 뜨거운 사랑의 섬김으로 아이들과 함께해주셨습니다. 또한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밥퍼 건축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벽돌도 나르고, 모래와 자갈도 나르며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지칠 법 한데도 환하게 웃으며 씩씩한 목소리로 "더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던 데오스학교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곤 뽀레야 예수!



울산남목고등학교

울산남목고등학교에서 캄보디아 국제교류 / 해외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작은 손길이나마 보태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보람되고 뿌듯하다며 기쁨으로 밥퍼를 함께 섬겨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옷과 학용품, 선물들도 한아름 전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행복하게 지내기를 진심으로 위하고 기도하신다며 캄보디아와 사랑에 흠뻑 빠졌다는 후일담을 들려주기도 하신 울산 남목고등학교 가족여러분! 남기고 가신 사랑의 향기로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밥퍼는 오늘도 향기롭습니다! 어곤 뽀레야 예수!

캄보디아 (프놈펜 지부)



홍콩감리교회

홍콩감리교회에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프놈펜 지부로 밥퍼봉사 오셨습니다. 매년 몇차례씩 오셔서 밥을 나누시고 후원해주시고 계시는 데요. 오실 때 마다 기쁨으로 봉사해주시고 협력해서 이웃들을 도움 방법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언어와 국적은 달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한 참된 이웃, 홍콩감리교회가 최고입니다.



신한은행 캄보디아 물품 전달식

다일공동체 프놈펜 지부에서 신한은행 캄보디아의 물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전제품과 쌀, 밀가루등 프놈펜 지부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해 주셔서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매해 잊지않고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신한은행 캄보디아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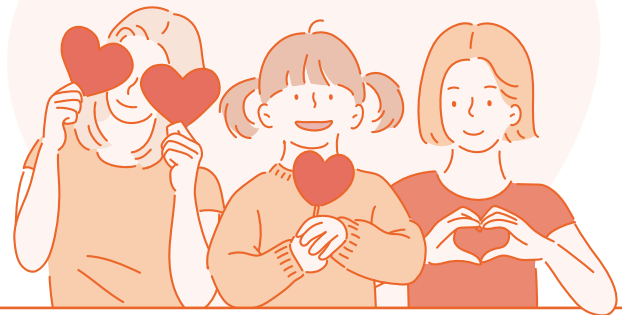
국제 로타리 3680 36년차 회장단 놀이터 준공식

국제로타리 클럽 3680지구의 후원을 통해 프놈펜 지부에서 놀이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고 웃으면서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보시는 회원 분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이터 준공 후에는 동네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마을 잔치를 지원해 주시고 오후 늦게까지 방역과 청소까지 해주신 국제 로타리 3680지구 36년차 회장단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정기후원
회원명단**
2018. 4 ~
2018. 5

· ㈜엘케이순수푸드, ㈜유니투어, ㈜윌호미트, Gregg Vanderhaiden, 강동원, 강아영, 김보람, 김봉주, 김상영,
· 김상준, 김선경, 김순옥, 김외순, 김은경, 김정아, 김종민, 김종배, 나옥희, 정범, 정현, 김주현, 김철민,
· 김춘이, 김희래, 김희연, 남보영, 네팔추가회원, , 네팔학비후원, 류지숙, 문지원, 문창식, 김수영, 밀알님
· 구순, 박경은, 박창현, 최윤, 박미김, 태이상, 나옥, 박성규, 박운정, 박은, 최혜은, 소하야, 박정미, 박정희,
· 박준규, 박태준, 변현우, 봉은초등학교,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랑오정, 삼영로지스, 서성구, 손경희, 송태희,
· 신동고, 안상현, 안세은, 엄태정, 오세광, 오정원수, 옷가게모금함, 우성경, 우진종합주방, 유정순, 유한국,
· 김성처, 홍종아, 유희주, 윤미자, 윤성규, 윤은기, 윤이식, 윤정희, 은강교회, 이경임, 이레옥션, 이미경,
· 이미순, 이선호, 이영길, 이영란, 이예지, 이옥임, 이은영, 이재리나, 이지훈, 이하나, 임미성, 임은정,
· 장혜경, 전이선, 정다훈, 정명진, 정선감리교회, 정신여고, 정영란, 정한숙, 조영권, 조용일, 조원진, 조지현,
· 주식회사 엠테크디지털, 주지안, 철은빈은민, 초대, 최병화, 최영순, 최영순, 최은주, 최은주, 최종명, 곡송금,
· 한기원치과의원, 한만송네팔후원, 홍승연, 홍지영, 홍진의

캄보디아
2018. 4. 5 ~
2018. 6. 5

· 후원금 Rocky Cafe, 국제로타리 372지구 울산로타리클럽, 금산마리아(충남교육청 봉사단),
· 나돌성선교회, 대박, 데오스학교, 리비다, 리일&조홍광, 박준수 장로, 새로운 교회,
·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울은누리교회(서빙고) 이재훈 목사, 소엽 신정균 선생,
· 신일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신병철 교장, 용인성민교회, 윤한글, 이명애, 정건국, 정암스님,
· 충현선교교회, 카도, 포항흥해중앙교회, 프놈펜제일교회, 홍콩감리교회

· 후원물품 [가전제품] 신한뱅크 캄보디아, [식료품] 신일고등학교, 신한뱅크 캄보디아, 새로운 교회,
· 프놈펜 제일교회, [의류 및 신발] 동하회, 아름다운 여행, 울산남목고등학교,
· [학용품] 국제로타리 3680지구 36년차 회장단, 데오스학교, 동하회,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 신일고등학교, 아름다운 여행, 울산남목고등학교, [방역기] 국제로타리 3680지구 36년차
· 회장단, [잡화] 신일고등학교, 아름다운 여행, 울산남목고등학교, [의약품] 새로운교회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베트남

2018. 4. 5 ~ 2018. 6. 5

후원금 A PLUS, KIS오케스트라, LOTTERIA, NAHAL, POSCO DAEWOO INTERNATIONAL, POSCO ICT VIETNAM, VEGAS, 권민혁님, 닥터카, 모금함,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아르디토, 아산상선, 오희승님, 이랜드노동조합, 이상용 목사님, 이종현님, 창조은광성교회, 충청남도 교육청, 호치민중앙교회

후원물품 ARTISAN(빵), E-VIET SOLUTION(쌀), KIS오케스트라(쌀, 초코파이, 바나나, 김), VEGAS(라면), 노엘(계란),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쌀, 초코파이, 바나나, 김), 아르디토(가방, 인형, 야구장갑, 비누, 티셔츠, 바지, 모자, 신발), 이랜드노동조합(쌀)

우간다

2018. 4. 5 ~ 2018. 6. 5

후원금 우간다 한인교회 여전도회, 권용배, 최양숙

후원물품 권용배(바나나, 비스킷, 막대사탕), 배종호(비스킷, 막대사탕)

중국

2018. 4. 5 ~ 2018. 6. 5

후원금 김성재[Obey & Praise], 김나현, 김학용

후원물품 최예화
[아동 저널 외식 지원, 아동 하복]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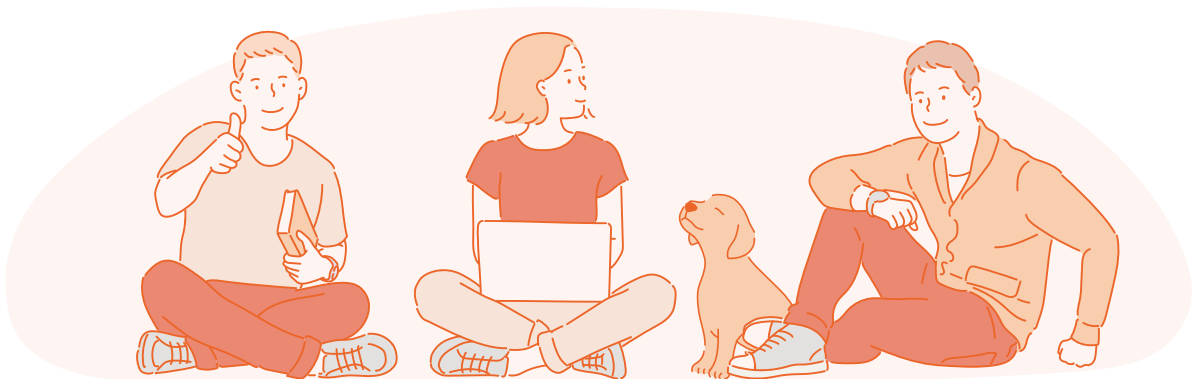
2018. 4. 5 ~ 2018. 6. 5

김은중, 김애영, 신지은, 김다영, 노예림, 문승욱, 박영미, 안현욱, 이인선, 재클린 박,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 한경숙, Chong Ae Bivens, Janeth Carrillo

네팔

2018. 4. 5 ~ 2018. 6. 5

부산영락교회 팀, 카타르 김상진 선교사 부부, 아메리칸 팀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후원 안내

정기후원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 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맺어
아이들의 양육을 돕고
꿈을 키워주기 위한 후원입니다.

일시후원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다일천사회원이 되어
국내·외 다일공동체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입니다.



천사기업(월 10만원 이상)

기업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후원입니다.



천사교회(월 10만원 이상)

교회가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후원입니다.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다일평생천사회원이 되어
설곡산 다일공동체 프로젝트 및
국내외 다양한 다일 사역을 지원하는
평생가족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 예금주: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 예금주: 다일작은천국

우리은행 1005-801-848969

· 예금주: (사)데일리 다일

네팔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45
베트남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16
우간다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61
중국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03
캄보디아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32
탄자니아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58
필리핀계좌 국민은행 467701-01-299229

· 새로운 다일공동체 해외분원 계좌입니다.
사단법인 데일리 다일로 다시 태어나는
다일공동체 해외분원을 응원해주세요.

미주다일공동체 후원문의

· Check 후원

Pay to the order: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

· Debit/Credit card/ACH 후원

미주다일공동체 오피스 770-813-0899
/usa@dail.org로 문의해 주세요.

· 후원하신 후원금 전액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미주다일공동체 홈페이지
(dailusa.org)에서도 회원가입후
후원신청 가능합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 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 1:1 해외아동 결연

월 3만원 _____ 명

☐ 쌀 10kg

월 3만원 _____ 구좌

☐ 천사기업

월 10만원 _____ 구좌

☐ 천사교회

월 10만원 _____ 구좌

☐ 기타

월 _____ 원

일시후원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 다일아너스후원

1구좌 1억

☐ 기타

_____ 원

후원회원 정보

이름

주민등록 앞 번호

연락처

☐ SMS 수신 동의

이메일

☐ e-mail 수신 동의

주소

☐ 우편물 수신 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이체희망일

☐ 5일

☐ 15일

☐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 번호

(남 / 여)

CMS 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인바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내실 곳 | 주소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리대로 57 6층 후원관리실 fax 02-2247-8004  다일공동체

국내·해외분원 연락처

다일공동체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 📍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8
- ☎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 ☎ 02-2212-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 📍 1247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 ☎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 📍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902번길17-3
- ☎ 031-584-7478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 📍 St N'63 Tour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 ☎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 📍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e Penh, City, CAMBODIA
- ☎ +855-17-764-440

필리핀 다일공동체

까만씨 본원

- 📍 2A Mustang st Pusok, Lapu-lapu city, 6015 Cebu, PHILIPINES
- ☎ +63-916-517-5892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 📍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 ☎ +977-98494-58330
+977-98413-84069

포카라 지부

- 📍 9 Shivatol Buspark Pokhara Kaski, NEPAL
- ☎ +977-98607-76685

중국 다일공동체

- 📍 133300 中国吉林省琿春市西城名苑53栋1单元601, 602
- ☎ +86-433-753-8004

우간다 다일공동체

- 📍 P.O Box 85 Kisubi, UGANDA
- ☎ Tel. +256-771-072-382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 Sea Breeze APT SB-2, Plot No. 192, Dar es Salaam, TANZANIA
- ☎ +255-629-426-641

베트남 다일공동체

- 📍 21 đường Mỹ Giang 2B, Khu phố Mỹ Giang 2, phường Tân Phong, Quận 7,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iệt Nam
- ☎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 📍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 ☎ +1-770-813-0899
(Fax) +1-770-813-0133
- 🏠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 📍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 ☎ +1-416-824-4831

아름다운 세상찾기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4박 5일)

192기/ 7월 30일-8월3일

193기/ 10월 22일-26일

194기/ 12월 10일-14일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4박 5일)

52기/8월 13일-17일

3단계

하나님과 동행하기(5박 6일)

27기/8월6일-11일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단체사용신청 및 개인피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031-585-6478, 031-585-2004, 010-3671-8014

홈페이지 sgdail.org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 11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통화가능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네비게이션으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다일천사병원 앞에서는 매 주일 오전에 스타렉스가 출발합니다.
답승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고 더욱 간편하게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